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1월 13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철도과	담당자	• 광역철도팀장 김종진 ☎440-3891 • 담당자 손현일 ☎440-3894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정부에 서울5호선 인천 연장노선 적극 제시할 것

- 시와 사전 협의 없었던 것에 유감, 서울시 건폐장 이전 반대입장 재확인 -
- 세부노선은 아직 미정인 바, 종합 검토 후 노선안 마련해 추가 협의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부의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확충 추진 발표 등과 관련해 향후 정부에 최대한 인천시에 유리한 노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5호선 연장(노선 미정)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와 연계해 김포지역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서울시와 서울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5호선 연장 사업과 이 사업의 동반 과제인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이전(인수합병, 폐업유도 등 포함) 추진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부 발표 등과 관련해 인천시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이는 그동안 인천시가 서울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적극 반대해 왔던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정부 발표와 서울시 등의 업무협약 체결이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하고,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서울5호선 연장사업의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연장 세부노선(안)은 인천시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 주재로 관련 지자체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천시는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시에 유리한 노선을 제시할 계획이다.

함동근 시 철도과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여러 철도노선계획과 서울5호선 연장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한 후 우리 시 노선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